<2과>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_우호철p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열왕기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엘리야를 도와주시고 엘리야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대선지자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두 명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은 누구죠? 욥. 욥과 엘리야. 그리고 아합 왕부터 아하시야 왕때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패션이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있으셨던 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야고보서 7장 17절 말씀인데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을 했던 시대적 환경을 살펴보면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가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국력이 강성해지고, 무역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를 누리게 되죠. 부와 국가적 성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유정책을 통해서 그 아들 아합이 시 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외교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와 무역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 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적으로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도 외교정책에 따라서 같이 갖고 들어왔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그리고 신전을 사마리아에 짓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위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게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현듯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금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고 말하는데 그 중심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의 죄를 그대로, 아니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죄는요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아예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드리는 것이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했고, 그리고 30절에.
열왕기상 12장 30-31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맡았어야 되는데요, 아무나 "너 제사장해." 아무나 세웠어요. 이것 또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열왕기상 12장 32-33절
[팔월 곧 그 달 십오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벧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벧엘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팔월 십오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벧엘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또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우상숭배 하도록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오히려 아합이 지었던 죄보다는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아합 시대에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정말 풍요롭게 많은 곡식과 많은 결실을 맺게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알 신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돼 있고, 하나님께로 향한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등장한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자 했던 일이 뭐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로가 있지 않을 거라고. 내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로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고. 바꿔서 말하면 풍요로운 신 바알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참 신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일임과 동시에, 그리고 그 땅에 바알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엘리야의 등장이에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의 등장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막강했어요. 3년 반 동안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만 해놓고, 이 위대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이 시작되죠? 풍요를 바알로부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우로가 있

지 않을 것이다. 정말 엘리야의 말이 맞다면 참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살아있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계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당장 진멸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기근을 예고하고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으로 불리는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리셔요.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을 먹게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비가 안 오네? 아 바알이 우리에게 정말 재앙을 내리는구나, 저주를 한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비가 다시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찾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찾아서 죽이려고요, 찾아다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하고 만나게 된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요단 강 동편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주변 국가들, 나라들까지 다 보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안 찾아봤겠느 냐고요.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신 겁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릿 시냇가, 이것은 비가 올 때 생기는 시냇가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이것을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다시 물이 흐르는. 그런 계속 있는 곳이 아닌데요. 거기에 숨어있었던 그런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의 신하들은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은 누가복음에는 사렛과부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이요. 그런데요, 그릿 시냇가에 숨었었던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에 물이 마르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과부의 공궤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돈 땅.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 땅이예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땅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바꿔말하면 이 시돈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 본거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 바로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로부터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에 풍요가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바알로 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기근이 있을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심한 기근 가운데 곤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는 굶었어요?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서는 먹이셨고요,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는 과부가 공궤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요. 부자, 아주 정말 가진 거 많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과부를 통해서 공궤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한 끼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처절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과부한테로 가서 공궤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끼만 먹고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 일을 진행하시기 전까지 그들 가운데는 기름과 또 그들에게 주신 가루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은 기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

우심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근하고 상관없었어요. 먹을 것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겪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은요, 어떤 예비되어진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릿 시냇가 이스라엘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못 찾잖아요. 그렇게 찾고 다녀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옮겨간 엘리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 가운데 3년을 숨어 지내다가 결국 아합 앞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 삼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 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근이 심하였지만, 엘리야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 기근이 결국은 아합 왕과 그 조상들. 아합 왕의 조상들과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 내린 것이란 걸 엘리야는 아합 앞에 가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아합은 지금 누구 때문에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처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을 아합 앞에 가서 엘리야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18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니까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올려라." 갈멜 산에서 대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39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안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날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 겁니다. 이제 3년 반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 과 정에 그 중심에 걸림돌이 바로 아합.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갈멜산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결단해라.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전력질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했던 엘리야. 이 대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날 갈멜 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진멸토록 하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낸 그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상한 취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고상한 취미를 하나 생활 가운데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좋은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말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사의 일. 이 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변합니다. 패션도 바뀌고, 그 당시 유행도 다 바뀌게 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하시지 않습니다. 3천 년 전이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리고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꾸 바뀌시는 분이에 요. 그렇다면 믿을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우심을 우린 받을 수 업습니다. 왜? 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 또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죄가 보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기회도 없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어요.
시편 121장 1-2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도움. 그 도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 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변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언제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심삼일도 안되는데? 자꾸 바뀌어요.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이것도 싫어. 자꾸 마음이 바뀌어 요. 그래서 내 마음도 의지할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있는 것을 오로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멸망한다고,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3장 찾겠습니다.
잠언 3장 5-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살며 기동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전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5장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뭘 빼고 읽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로다. 자, 뭐 빼고 읽었어요? '다'예요 '다'. 전부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전부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어떻게 한 명 남겨요? 안 남깁니다.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학교 내에서 조그만 일 밖에 안 맡았는데요." 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중요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분은 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몸도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리고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피가 돌지 않는 곳이 없는 곳처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만큼 내가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

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까 우리 읽었었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안에 붙어 있어야 합 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또한 필요한거죠.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그 말씀. 찾아야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 요. 결국은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 예,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했던 일, 그건 자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눈이 멀어있는, 하나님께로 향해있는 그 눈이 멀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빛을 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건 바로 엘리야였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 한 장만 더 찾죠.
시편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 여기 순서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세상 환경이 하나님께로는 눈이 물어있는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있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집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정말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사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의 행보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 합당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지체들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 가운데 어리석음과 또한 허물들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돕고계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